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 16 이제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 버리고 고통의 나날이 나를 붙들었다.
 17 밤이 되면 뼈가 쭈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
 18 엄청난 힘이 내 옷을 잡아채는구나. 내 옷깃같이 나를 휘감는구나.
 19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 잿더미처럼 돼 버렸다.
 20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 주지 않으십니다.
 21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22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23 나는 주께서 모든 살아 있는 것에게 정해진 집, 곧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을 압니다.

· 비참한 처지를 한탄함

- 24 그러나 사람이 망해 가면서 어찌 손을 뻗지 않겠습니까?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25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울어 주지 않았던가? 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안타까워하지 않았던가?
 26 내가 선을 바랐는데 악이 왔고 빛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왔구나.
 27 내 속이 끓고 편하지 않았다. 고난의 날들이 내게 닥쳤기 때문이다.
 28 내가 햇빛도 비치지 않는 곳에서 울며 다니다가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청하게 됐다.
 29 내가 자칼의 형제가 됐고 타조의 동무가 됐구나.
 30 내 피부가 검게 그을리고 내 뼈는 고열로 타들어 가는구나.
 31 내 수금 소리는 통곡으로 변하고 내 피리 소리는 애곡으로 변해 버렸다."

3 묵상하기

우리는 욥과 같은 고통을 감히 상상하거나 공감하기가 힘듭니다. 가족이 모두 떠나고, 재산도 모조리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상처도 감당하기 힘든데 온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는 고통까지 더해지는 상황을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마저 도와달라고 울며 부르짖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지금 욥에게는 현실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무응답이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론을 아는 사람이라면 욥의 아픔과 하나님의 침묵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우리가 고통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시며 그분의 시간에 치유하고 고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입니다.

4 적용하기

신앙의 하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슬퍼하며 포기하지만, 신앙의 고수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때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초조해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부재중'이 '하나님의 임재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영혼까지 무너지는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아픈 시간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성숙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나요?
- ②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 나는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할까?'라는 의심의 마음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1 2 3

- 16 이제 내 영혼이 속에서 쏟아져 버리고 고통의 나날이 나를 붙들었다.
17 밤이 되면 뼈가 쭈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끊이지 않는다.
18 엄청난 힘이 내 옷을 잡아채는구나. 내 옷깃같이 나를 휘감는구나.
19 그분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셨고 내가 흙덩이처럼, 잿더미처럼 돼 버렸다.
20 내가 주께 부르짖는데도 주께서는 듣지 않으시며 내가 일어서도 주께서는 나를 보아 주지 않으십니다.
21 주께서 이토록 내게 잔혹하셔서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22 또 나를 들어 바람에 날아가게 하시고 폭풍으로 나를 쓸어버리십니다.
23 나는 주께서 모든 살아 있는 것에게 정해진 집, 곧 죽음으로 나를 끌고 가실 것을 압니다.

• 궁굼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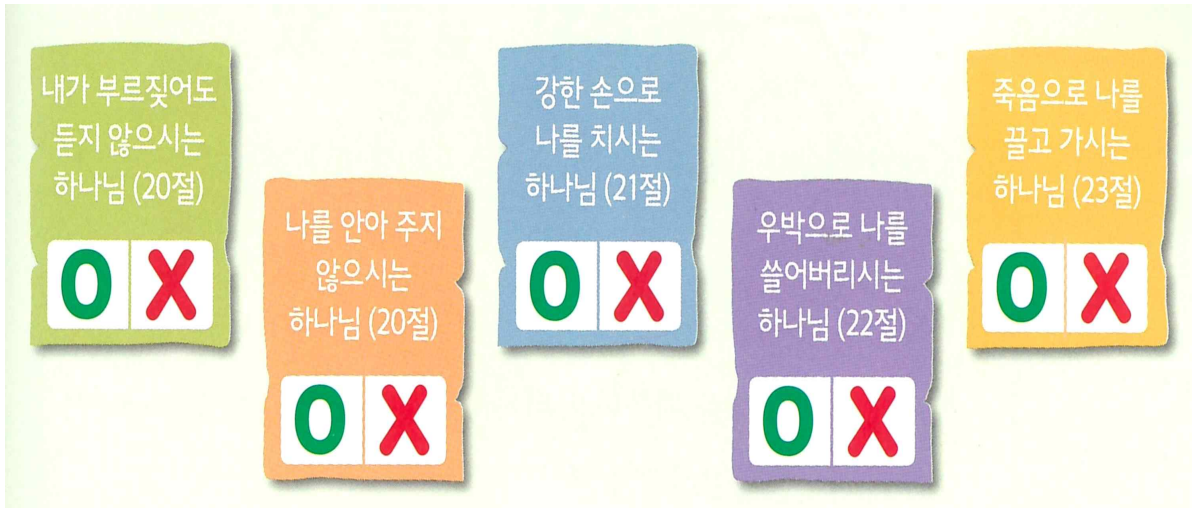
*잿더미: 풀이나 나무 등이 불에 타고 남은 찌꺼기의 더미

*잔혹: 잔인하고 혹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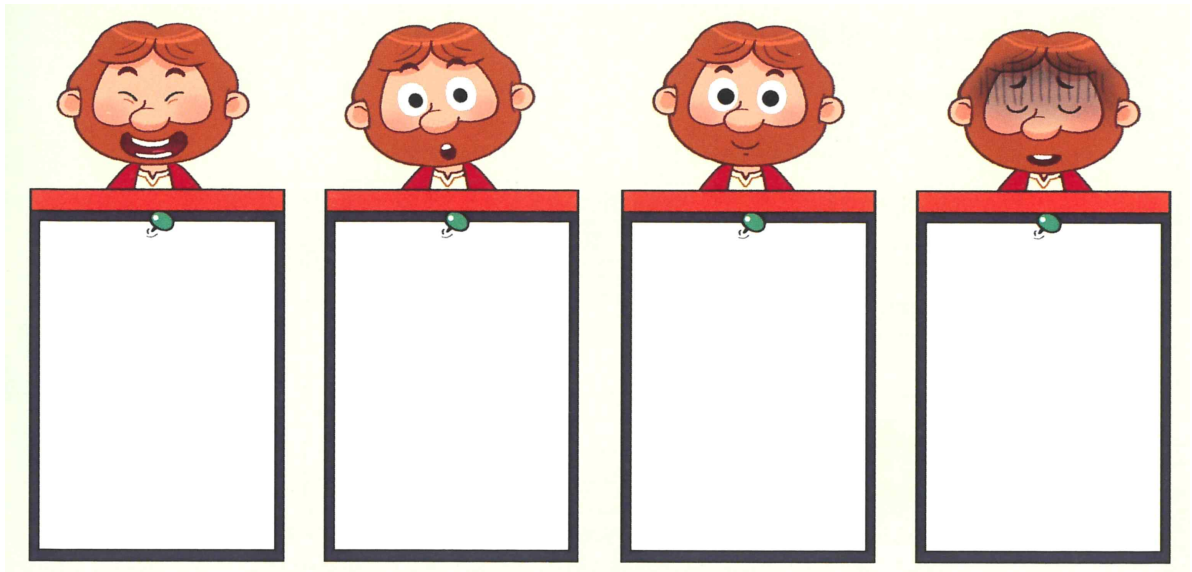
• 말씀 씨앗

욥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듣거나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욥은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셔서 벌을 내리시고 죽음으로 끌고 가신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욥의 믿음은 흔들리고 그저 괴로울 뿐이에요. 욥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요.

3 말씀 새싹 - 읍이 하나님에 대해 표현한 것이 맞으면 O, 아니면 X에 표시하세요.



5 말씀 열매 -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나요? 아래에 쓰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읍은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셔서 죽음으로 이끄신다고 생각했어요.

6 기도하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